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73 2015 / 11



창포 가는 길

글 진주 봉원초등학교 교사 신애리

창포 가는 길엔 가로등은 없어도
동백이 붉은 꽃등 줄줄이 엮었더라
외줄기 빈 바닷길에 목을 빼고 섰더라

바다도 호수같이 잠만 자는 동해면
갈대들만 술에 취해 온 몸을 비비는데
항아리 물병 속 같이 그려놓은 갯마을

또옥 푹 노크하고
손 내미는 날 두고
올 동백은 잇몸까지 드러내고 웃더라
마흔 살 숨가쁜 고개 넘었는데 버얼써

올 봄에도 못다 한 말 동백처럼 붉어서
77번 국도 위를 구름 달고 달려간다
구겨서 푹 던져 놓고 이름 하나 잇는다.



Contents



04 권두언

다채로움이 아름다움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장학칼럼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 김태중

09 특별기획 /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미래를 꿈꾸다 / 강주
초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 박미정
거창한 아이들의 오색빛깔 행복 STORY / 박명익

20 교육정보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란?
배움중심수업과 이전 수업의 다른 점은?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
복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기관)별 11월 주요 행사 안내

28 배움중심수업

왜 배움중심수업인가? / 박선이

30 배움이 즐거운 학교

꿈을 이루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가는 장복교육 / 박정민

32 동아리 탐방

창의 DREAM 수업연구회 / 동순화

34 이달의 교사

낙서하모니 교육활동으로 크게 자라는 낙서어린이 / 전효식

36 책 읽는 교사의 서재

교사 옥복녀의 서재는 삶의 당근과 채찍이다. / 옥복녀

38 삶의 향기

그림 재능 기부, 나누어서 더욱 행복해요 / 박영숙

39 지상갤러리

숲 / 박영애



표지사진 "국악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아이들"
조지원(김해 대곡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2월호 모집 기간 : 2015년 11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 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5년 11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최훈 기획 |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오영선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다채로움이 아름다움

서머힐 학교가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젊은 지성인들의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설립자인 A. S. 닐이 1921년 이후 50여 년 간 운영해 온 학교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책을 출간하였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의 이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특이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이 학교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남의 나라 일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앞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인지 편향 교육을 지양하고, 심신의 고른 성장을 위해 감각과 사고, 의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했습니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인지적 능력, 도덕성, 실용적 재능을 아울러 발달시키는 것이 학교 설립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노작 교육과 예술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안 교육(Alternative Education)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이들 학교는, 기존 학교 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의 내용을 삶 전체로 넓히고, 체험을 통한 체화를 중시하며, 지성·감성·의지를 골고루 갖추게 하자는 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 따른 우열을 가리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습 속도의 개념이 약화되고 활동 영역의 다양화가 요청됩니다. 자유주의가 대안교육의 바탕인 까닭이 여기에 있고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진 까닭도 여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한편, 대안 학교의 재원은 설립자나 학부모의 출연에 의존합니다. 발도르프 학교도 담배 회사 사장의 회사에 의해 공장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사적이다 보니 귀족 학교 논란도 짝뜨게 됩니다.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학력에 대한 인정 문제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하며 독창적인 교육을 펼치는 이들 학교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은 판이하므로 국가 기관의 학력 인정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하면 자율성이란 본질이 훼손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1990년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대안 학교들은 표방하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학교는 학력 인정 문제에 대입의 현실을 수용할 경우에는 정체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안’의 의미가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구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안 교육이 내건 이상과 가치는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교육이 비인간화된 사회를 심화시키는 강력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화로운 영육의 성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삶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안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통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 교육’이라 명명하며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학생의 잠재력과 희망을 존중해 그것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학교들을 폐교 시설을 활용해 하나씩 세울 계획입니다. 영화·연극·음악·미술·도예 등의 문화 예술 분야 학교들, 새터민 학교·다문화 학교와 같은 특수 계층을 위한 학교들, 한방약초 학교·뷰티 학교·반려동물 학교 등 직업 관련 학교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제도 교육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펼쳐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들 학교의 프로그램에 일반학교 학생들이 단기 과정으로 이수하는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제 교육에서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그 기틀을 변모시키기 위해 공모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 과정을 개설하거나 특성화고의 학과를 증설해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구태여 새로 학교를 세우려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트랙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다양성 학교들은 개인의 성취 속도에 맞추어 가고, 개인의 열정과 의지를 도우며,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정규 학교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학교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1842~1845년 사이에 일어난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다른 나라로 숨어들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아일랜드를 살렸던 감자가 마름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품종을 심었더라면 재앙이 줄었을 것입니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건강과 안정을 기약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찬 감자를 키우는 교육도 중요하고, 고구마를 기르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가을 산빛이 아름다운 것은 울긋불긋 저마다 다른 빛깔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채로움이 아름다움입니다.

다양성 교육에 대한 단상 하나

교육감 박종훈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생생현장



- 1 교육청-대학 교육발전협의회
- 2 평준화지역 고등학교교장 연수
- 3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
- 4 수능 30일전 고3 학생 격려

-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밀양교육지원청)
- 6 뮤지컬 문화체험 프로그램(남해교육지원청)
- 7 청렴 퍼포먼스 '천원의 행복' (사천교육지원청)
- 8 사례별 맞춤형 연수를 통한 신규교사 역량 강화(진주교육지원청)
- 9 초등학생 합창 발표회(창원교육지원청)
- 10 통영Wee센터 사제동행캠프(통영교육지원청)
- 11 2015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함양교육지원청)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글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중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배움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행복이라고 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살며 행복해지기 위하여 배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인 행복 추구권이 있으며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헌법에 정한대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행복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을 보탠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논어에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즉,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각 교과는 토의·토론 수업, 실험·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이 되게 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핵심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떻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덜 느끼도록 조정되었다.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유사한 내용은 합쳐 학습 내용과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활동이 즐겁고 유의미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배우던 분수·소수의 혼합 계산,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 과정으로 옮겼으며 꼭 배워야 하는 필수 내용만 선별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온 국민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였으며 이를 계기로 안전생활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체험중심의 교과활동으로 안전교육의 효과와 더불어 재미를 더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인문학적 기초 소양을 위한 초·중·고 교과목에 연극 단원을 포함시켜 연극교육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재미있는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무엇보다 고등학교에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공통과목’을 도입하였으며,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쌓고 다양한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한 점도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정된 새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는 학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경남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 되게 하자.

특별기획

2015 개정 교육과정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슬로건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미래를 꿈꾸다

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강 주

우리나라의 교육은 가능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부지런히 익혀 성공적인 ‘추격교육’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현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은 넘쳐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곧바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정보나 지식을 외우고 평가하는 교육은 이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여러 지식 중 핵심이 되는 개념이나 원리를 체험과 학생 참여수업중심으로 익혀 주변 지식과 결합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및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부가 9월 23일 발표한「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조경제사회를 대비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사회적 차원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 창의·융합형 인재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3년도부터(2017년 대입제도 발표)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10월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9월「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고, 이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총론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내용 중복 해소, 교과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각계 인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진에 현장교원을 40%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현장교원 및 학계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을 개최(14회)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교육전문직과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추진(‘14년 1,200여명, ’15년 1,200여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고등학교에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 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16년)에 대비하여,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급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은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

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 하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과 함께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충실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초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90시간)를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균형학습을 유도하고,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교과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어의 경우, 초등 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학생들이 입학 후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중심의 연극수업 강화*, 1학기 1권 독서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초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 (중) 국어 연극 소단원 신설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공통 과목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학생 발달단계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였으며, 이후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수월성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 수학’,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심화 수학 I, II’ 등을 신설함으로써 선택 과목을 재구조화하였다.

아울러, 수학적인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과 탐구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수업 내용과 실제 평가와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어의 경우,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어휘 수(3천개)는 유지하되, 어휘 목록과 언어형식을 학교 급별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학생 발달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 교과는 지식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초·중·고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사회과학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용구조를 체계화하였다. 고등학교 문·이과 공통으로 신설되는 ‘통합사회’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으로 개발하였다.

과학의 경우 ‘모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교육’을 목표로, 초등 저학년 ‘슬기로운 생활’, 초·중학교 ‘과학’, 고1 ‘통합과학’까지는 주위의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하고, 고2학년 이후에는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진로에 따라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 이수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과목을 구성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우, 학습 내용과 수준을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체험·실습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학습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학생들이 정보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보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며(국정: 2017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침은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일괄 적용하도록 별도 조항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산업수요 특성에 맞게 개발한 ‘NCS 교육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학교에서는 '16년부터 실무 과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발표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수능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1학년도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17년에 수능 개편안을 확정·발표하고,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결과의 대입 반영 방안을 '17년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과서 개발 계획, 교원 연수 및 양성 체제 개편, 대입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초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주요 내용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박미정

1. 추진 배경

- 문·이과 구분 및 수능과목 중심의 지식편식 현상 개선
 - 지식정보·창조 경제 사회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필요
- 과도한 학습량, 지식위주의 암기식 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저하
 -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으로 전환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총론】

- 미래사회에 적합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 역량 제시

▣ 추구하는 인간상 :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핵심 역량(6) :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인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함양과 인성교육 강화
 - 연극교육·독서교육 강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문·이과 공통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현행 39개 →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초등 교과 교육과정】

현재의 학교 교육

- 과다한 학습량으로 진도 맞추기 수업
- 어려운 시험 문제로 수학 포기자 양산, 높은 학업 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도 저하
- 지식 암기식 수업으로 추격형 모방 경제에 적합한 인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교 교육의 모습

-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구성
-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 중심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선도형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학습량 적정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이·확장이 가능한 교과별 핵심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 ‘넓고 얇게’ 학습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적은 양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 사고력을 신장하고 학습의 질을 높임
- (교실 수업 개선) 토론·협력학습, 탐구학습 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핵심 역량 함양 및 행복한 교실 구현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 신설
 - ※ ‘안전한 생활’은 교과가 아님

【현행 교육과정 대비 신규 대조표】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국민공통교육과정 조정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대학수능 시험 제도 개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육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총 론 공 통 사 항	핵심역량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규정 없이 일부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에 6개 핵심역량 제시 •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인문학적 소양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고 심화선택 ‘연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교육 활성화 - (초,중)국어 연극 단원 신설
	소프트웨어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과교과에 ICT 활용교육 단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과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
	안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체에 안전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교과 또는 단원 신설 - (초1~2) 「안전한 생활」신설 (64시간) - (초3~고3) 관련 교과에 단원 신설
	범교과학습 주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내외 범교과학습 주제로 재구조화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초등학교 1~2학년군 : 64시간 증가(창의적 체험활동 속의 안전한 생활)
- 3~4학년군, 5~6학년군 : 2009 개정과 동일
-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전한 생활’은 감할 수 없음



거창한 아이들의 오색빛깔 행복 STORY

글 거창초등학교 교장 박명의

I. 행복 STORY 시작하기

올 해로 개교 108년을 맞이하는 본교의 나지막한 정문을 한 발짝 들어서면 매일 아침 우리를 반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방금 찬물로 세수한 듯 늘 맑고 청신한 목소리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는 맛이 이 맛이 아닐까? 아이들은 아기 새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원색의 물감으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낸다. 마음 속 심연에서 조심스레 꺼내 든 스케치북에 무엇을 그리던, 어떤 덧칠을 하던 그건 아이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손짓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각기 다른 빛깔들이 모여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학교, 모두가 즐거운 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 거창초등학교의 오색빛깔 행복 STORY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공동의 성찰을 바탕으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걸음들을 만들어왔다. 소중하게 주어진 지면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참 행복했던 본교의 교육활동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II. 행복 STORY 만들어가기

1. 나눔과 공유(Sharing)로 만들어가는 행복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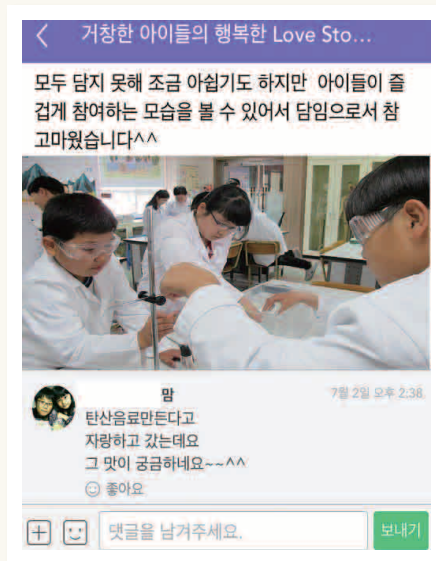
사랑과 재능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을 열어주면 아이들은 저마다의 참신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학년 수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한 만민공동회를 통해 학교와 교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축적된 실력으로 지역을 위한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협력 기관의 예산이 삭감되어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연극부를 강력한 의견 개진으로 다시 살려놓은 것도, 전쟁의 슬픔이 스며있는 거창사건을 위한 추모공연으로 군민들의 눈시울을 적셔 놓은 것도 모두 아이들의 작품이다. 지난 1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새삼스레 깨닫게 된 것은 아이들에게는 일방통행으로 잘 뉘여진 길이 아닌, 단지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2. 생각의 힘(Thinking)으로 만들어가는 행복 이야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다름 아닌 수업시간. 수업시간에 생각 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된다면 아이들은 학교의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본교는 학년별 수준에 따른 토의토론기법을 선정(창문열기 등)하고,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주제를 추출하는 등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토의토론활동이 교실수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 STEAM, 액션러닝 수업 등 교과내용과 학년(군)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을 열어주고자 노력하였다.

3. 창의의 힘(Originality)으로 만들어가는 행복 이야기

2009개정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인재를, 2015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주창하고 있다. 창의성은 곧 합리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다양한 배경지식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기회,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교는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확대하여 이와 같은 수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우리 고장 거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 영상 제작 및 민원 신청하기, 학교 속 사례를 찾아 공익광고를 만들고 홍보하기, 이산화탄소 발생실험을 바탕으로 탄산음료 만들기 등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었던 흐뭇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떠오른다.



4. 꿈과 끼(Yearning)가 자라는 행복 이야기

끼는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요, 꿈은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끼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꿈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체험과 다채롭게 만나야 한다. 본교는 ‘끼가 자라는 교실(창체 집중 편성)’ 주간을 지정하여 아이들의 재능과 소질을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중 2회의 콘서트(행복자람, 행복드림) 무대를 통해 이를 공유한다. 더불어 ‘꿈이 있는 교실(창체 집중 편성)’ 주간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벤처기업 창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동아리, 학급, 학년 단위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 및 직업체험 또한 아이들의 꿈과 끼가 자라는 행복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행복 STORY 되돌아보기

지난 6학년 수학여행이 종료된 후 스마트밴드에 게시된 학부모의 글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열정과 창의성으로 일궈낸 멋지고 위대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통해 「우리 함께」라는 의미를 확실히 깨닫지 않았을까요? 멋진 교훈까지 덤으로 얻은 이번 여행은 정말 최고예요.” 돌아보면 제법 깊고 울곧은 발자국.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해하고 있을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이 자라는 소리가 들린다. 대지를 차고 오르는 풀잎의 노래보다 신비롭고 우주가 뿜어내는 장엄한 역동보다 더욱 신비롭다. 학생들은 마치 교사의 산소와 같아 그렇게 교사는 숨을 쉬고 자신의 몸을 태우는 듯하다. 아이들의 걸음을 소리 없이 비춰줄 수 있는 소박한 빛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 ▶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란?
- ▶ 배움중심수업과 이전 수업의 다른 점은?
- ▶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
- ▶ 복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 ▶ 부서(기관)별 11월 주요 행사 안내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란?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 ▶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는 불요불급한 소모적인 전시성 행사나 대회, 교육활동을방해하는 관행과 관습의 구태 정책을 폐기·축소해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 ▶ 2015. 본청 학교업무 다이어트(51건 사업 폐지)

내용 \ 항목	학생참여	교직원 연수 컨설팅	연구대회 연구회 지원	행정지원	비고
폐지(51건)	15건	4건	9건	13건	
통합·개선(107건)	107건				
이관(3건)	3건				

※ 정비유형별 : 폐지 51건, 개선·통합 105건, 이관 3건

- ▶ 2015.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업무 다이어트(38건 사업 폐지)

내용 \ 항목	학생참여	교직원 연수 컨설팅	연구대회 연구회 지원	행정지원	비고
폐지(38건)	12건	4건	9건	13건	
통합·개선(33건)	13건	5건		15건	

※ 정비유형별 : 폐지 38건, 통합·개선 33건

▶ 학교업무 다이어트 정책 제안제 시행

- 학교 현장에서부터 정책을 제안 받아 담당부서 검토 후 시행(매월)
- 학교업무 다이어트 정책제안제 업무 처리 절차
학교업무다이어트 정책제안(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의견청취)
→ 제안 과제 검토 → 제안 결과 공개

[담당자 연락처 : 278-1695]

배움중심수업과 이전 수업의 다른 점은?

배움중심수업이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사용되어온 협동학습모형, 프로젝트수업모형 등이 배움중심수업에 그대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움중심수업과 이전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배움중심수업은 ‘방법’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철학일까요? 수업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수업과 다른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전의 수업이 교사가 수업할 내용을 준비하고 수업의 설계까지 모두 했다면, 배움중심수업에서는 그런 배움의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틀에 갇힌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움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상호작용(연결 짓기)이 중요합니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교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배움과 배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학생이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이 교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움 내용부터 학생들의 삶에서 소재를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3. 다양한 수업방법도 철학을 학생 중심으로 바꾼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모두 이전부터 있었던 학습방법입니다. 그것을 구현할 때 교사중심으로 구현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교류하고 교사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용한다면 모두 배움중심수업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움중심수업은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겠지만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114]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 목적

-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9조, 「동법시행령」제112조, 훈령 제131호

▶ 평가 대상 및 기간

- 평가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와 도로 구분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 '15년 또는 '15학년도 실적 평가

▶ 평가 시기

- 2016년 1월 ~ 5월

▶ 평가 방법

- 정량평가(절대, 상대평가) : 75개 지표 ○ 정성평가 : 9개 지표
- 만족도 조사 : 4개 지표 ○ 청렴도 조사 ○ 가감점 부여

▶ 평가 내용

- 7개 영역, 23개 지표, 89개 세부 내용 (2015년 또는 2015학년도 실적)

▶ 평가 영역 및 배점

평가 영역	배점
① 학교교육 내실화	22
②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21
③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10
④ 교육비 부담 경감	13
⑤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11
⑥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13
⑦ 교육청 특색사업	10
계	100

[담당자 연락처 : 278-1731]

복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육·사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교육비리 및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불법·비위행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호에서는 복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1. 부패취약업무 점검 소홀

「부패취약업무 자체점검을 통한 청렴도 향상 계획(감사관-5064, 2014. 9. 12.)」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6대 부패취약업무(학교운동부,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부패위험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자기제어능력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관행적 부패 근절을 통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부패취약업무 자체점검표¹⁾’를 매월 작성·활용하여 부패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장 ○○○은 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사시 까지 부패취약분야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자체점검표를 작성·활용하도록 지시 및 확인하지 않아 부패여부를 점검·개선하는 데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문서 관리 소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7조(서류보관 등)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사 ○○○은 2015. 8. 3. 복무감사일 현재 2015. 8. 3.부터 2015. 8. 5.까지 발명교사 교육 표준과정 연수로 근무지내에 있지 아니함에도 문서를 보관하는 교사용 책상 서랍의 잠금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책상서랍 내부에 학생 주민번호, 병명 등이 기재된 학생소견서 1부 및 1학년 1반 학생 주민등록등본, 학생 개인정보 및 학부모 연락처가 기재된 자기소개서, 사망진단서를 보관한 사실이 있다.

교사 ○○○은 2015. 8. 3. 복무감사일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근무지내에 있지 아니함에도, 문서를 보관하는 교사용 책상 서랍의 잠금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책상 서랍내부에 업체 계좌번호가 기재된 엑스선 검진비용 청구서 및 업무용 보안USB 등 4종의 이동식 저장디스크를 보관한 사실이 있다.

1) 자체점검표는 학교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활용 가능(해당 없는 업무는 작성 제외)

교사 ○○○는 추석 복무 감사일 현재 13:30~16:30까지 가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상황임에도 교무실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에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15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방치한 사실이 있다.

도교육청의 추석 복무감사일 현재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은 4학년 평가지(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를 인쇄 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행정실 책상위에 방치하였으며, 지방교육행정주사 ○○○은 행정실에 인건비 변동자료 내역 등 ‘문서관리 잘못 내역’과 같이 19권의 문서철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캐비닛에 보관하였고, 3-3반 담임교사 ○○○은 2014. 방과후학교 계약서 및 운영 관련 3권의 문서철을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교실 책상 안에 보관하는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시건장치 및 보안 관리 허술

「경상남도교육청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2015.3.」제25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에 의하면 사이버·보안 진단을 별지 11호 서식에 의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 서식은 컴퓨터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를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사 ○○○, 기간제교사 ○○○은 하계 복무감사일 현재에 방학중 출근하지 않음에도 책상 서랍의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교사 ○○○은 캐비닛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 ○○○은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교감 ○○○, 교장 ○○○은 위와 같이 보안관리가 허술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하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및 제5조(출장의 절차)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병가·지참·조퇴·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근무지내 출장) 또는 출장신청서(근무지외 출장)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사 ○○○은 도교육청 하계 복무감사 현재일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077]

부서(기관)별 11월 주요 행사 안내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 (기관)명	연락처
1	11.2.(월)~ 11.30.(월)	교육공무원 연수운영	연수원 및 외부장소	교육공무원	1,850명	교실수업개선, 리더십함양, 시책, 생활지도, 진로진학 관련 연수	경남교육연수원	279-9011
2	11.2.(월)~ 11.30.(월)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연수원 및 외부장소	지방공무원	945명	행정지원능력, 리더십함양, 교양 관련 연수	경남교육연수원	279-9071
3	11.6.(금)	세시풍속 체험활동(입동)	실외체험장	체험활동 참여 유치원 원아	120명	김치 담그기, 나뭇잎 모으기, 공기놀이	김해유아체험 교육원	343-8681
4	11.7.(토)	숲생태교육 워크숍	유아교육원, 정병산	공시립 유치원 교원	40명	숲체험 프로그램 및 생태기반 유아교육 활동의 실제 연수	경상남도 유아교육원	237-8085
5	11.7.(토) 14:00~16:00	11월 독서아카데미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국악가족 '가무악 가야'와 함께-	김해도서관	지역주민	100명	국악가족 '가무악가야'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개최 -공연:가무악가야, (사)일통고법보존회경남지회 -내용:국악강연과 국악연주, 춤공연	김해도서관	320-5563
6	11.7.(토) 14:00~17:00	게임중독을 극복한 형제 서울대합격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학부모	50명	심한 난독증으로 중졸 학력 밖에 갖지 못한 <노태권>이 게임중독 중졸 아들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자녀교육 이야기	마산도서관	240-4541
7	11.13(금) 09:50~	찾아가는 체험활동	진주 금곡초등학교	진주지역 병설유치원	65명	소규모 유치원 유아들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경상남도 유아체험교육원	760-7122
8	11.13.(금) ~11.14.(토)	교육과정 컨설턴트 연수	창녕 부곡 로얄호텔	컨설턴트 및 업무담당 장학사	110명	• 배움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 1학기 교육과정 컨설팅 결과 공유 및 2학기 컨설팅 중점내용 토의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68-1113
9	11.14.(토)	염재상 초청특강	시청각실	지역주민	110명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 여행의 인문학적 가치	창원도서관	278-2851
10	11.14.(토) 14:30~17:00	인문학특강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고등학생 이상	80명	문화평론가 <이동연> 박사의 '한국의 대중문화 와 문화자본'에 관한 특강	마산도서관	240-4550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 (기관)명	연락처
11	11. 14.(토) 11. 21.(토)	행복유치원 연수(Ⅲ)	경남유아교육원 대강당	공시립유치원 교원	80명	행복한 교실에서 배움으로 크는 교사와 아이들 (행복맞이 유치원 실제) 외 행복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상남도 유아교육원	237-8085
12	11.21.(토)	가족나들이 생태체험활동	실외체험장	도내 만4, 5세 유아 가족	150명	미중물, 흙산, 과수원(전통놀이), 산책	김해유아체험 교육원	343-8681
13	11.21.(토)	2015. 행복학교 축제	경남교육연수원	도내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6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교 토크 콘서트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연구회 사례 나누기 학생자치활동 및 학부모네트워크 사례 나누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278-1763
14	11.21.(토) 15:00~	인형극 공연 '토끼와 자라'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어린이	100명	전래동화 '토끼의 간'을 원작으로 꾸민 인형극	마산도서관	240-4570
15	11.23.(월) ~11.24.(화)	유치원 안전담당 교사 안전교육 연수	경남유아교육원, 진주교육청	공시립유치원 안전담당교사	67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통학버스 안전 안전교육프로그램 적용의 실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68-1153
16	11.25.(수)	2015. 행복 나눔 15'(2차)	국립 진주박물관	희망교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중심수업 실천 사례 소개 수업 성찰 및 교류 소통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정보 공유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68-1114
17	11.25.(수)	2015.학교평가방법 연구회 중간보고회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4층 종합강의실	학교평가방법 연구회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20명	2015.학교평가방법연구회 중간 보고 및 평가회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269-0713
18	11.28.(토)	2015.초등교과 교육연구회 도시 정과제 연구결과 발표회	교육연수원	26개 교과교육 연구회 회원	300명	도시정 연구과제 발표 및 워크숍 개인연구 발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68-1115
19	11.28.(토) 10:00~	토요가족 체험운영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경상남도내 만3~5세유아 및 학부모	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공체험, 물체험, 동화방, 아트룸, 건축블록 체험 등 5개 체험실을 학부모와 함께 체험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760-7124

왜 배움중심수업인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개최국인 한국의 기자들에게만 특별히 질문권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 기자들 자리에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한국 기자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질문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질문권을 한국 기자들에게 주었다며 연신 한국 기자들을 향해,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를 반복했다. 끝까지 한국 기자들은 질문이 없었고, 결국 기회는 중국 기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장면은 우리교육의 취약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오늘날 최첨단 정보기기의 발달은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 손 안에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더 많은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 애쓰는 공부라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과 문제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해 가는 등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능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OECD는 이미 2003년 핵심역량 프로젝트(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를 통해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내놓았고, 그 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는 ‘협력적 문제해결력’과 ‘생태적 감수성’이 평가 지표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핵심역량지수 중 지적역량은 36개국 중 2위인데 반해, 학습흥미도는 36개국 중 최저,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65개국 중 58위,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은 36개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지적역량은 높은 반면, 학습흥미도와 OECD에서 미래핵심역량으로 강조한 상호작용역량이나 관계지향성 등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대적 패러다임과 학력의 개념까지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실현장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아직도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교실, 시험점수가 최고이며 정답 맞히기 경쟁에만 내몰려 학생들의 질문은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되는 교실은 아닌가? 무조건 주워 담고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도, 공감할 줄도 모르는 아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근거를 찾아 설득력 있게 끄집어낼 줄도, 주장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로 길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수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단순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기르는 정도의 수준은 교사의 우수한 PCK를 통해 충분히 가르치고 익힐 수 있지만, 미래핵심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력, 협업력, 활용력, 이해력, 소통력, 복합력, 창의력 등의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수업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은 장차 지식과 실행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 함양에도 주력해야 한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나누고, 나아가 자연과 공존 공생하는 법도 깨우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배움의 원천을 ‘교과’로부터 ‘삶’으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배움중심수업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강화되고, 시·도 단위의 교육 정책에서도 미래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배움중심수업은 어떤 수업이며,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까?

배움중심수업은 한마디로 교육 본질의 회복이다. 어떤 구체적인 수업 방법이나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 활동의 관점이자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지식을 창조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존재해야 하는 수업이라는 것이다. 배움중심수업의 핵심은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지식이 완성된 것,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형성되어 인간의 인식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배움이란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배움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식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자신만의 사고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또, 배움중심수업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평가와 더불어 총체적인 교육 활동의 혁신을 의미한다. 즉 배움중심수업은 수업의 내적 요소, 이를테면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에 따르는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교과지식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될 때 보다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학습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나며 서로 활발하게 토의하고 협력하게 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의 삶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즉 배움이 한 아이의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수업 방법들, 예를 들어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이라든지 프로젝트학습, 하브루타, 배움의 공동체, 토의 토론 등등 지금 교실 현장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활용되고 있는 수업 방법들을 연구,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적용해 보면서 꾸준히 수업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수업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일 것이다.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도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끊임없이 실천적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교사에게 수업은 하나의 의미와 가치로 다가올 것이며 학생은 물론 교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과 성장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배움중심수업은 학생에게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역시 수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 수업인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가는 장복교육

글 창원 장복초등학교 교감 박정민

1. 소프트웨어로 꿈을 키워가는 장복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장복초등학교는 2008년 개교해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학교이지만 개교할 때부터 기초와 기본 교육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교육 비전 아래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5학년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에 앞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 특색 교육과정으로 선정하고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교육’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 꿈을 이루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구축

■ 소프트웨어실 구축

기능 중심, 프로그램 사용 능력 중심의 기존 정보 교육과는 다르게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소프트웨어 교육공간을 구축하고 관련 기자재를 확보하여 교육하고 있다. 특히 모둠 활동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전문성 향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위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경기도 대디스랩에서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기 중에는 사이버 연수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5, 6학년에는 전담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 DREAM 수업연구회

글 창원 무동초등학교 교사 동순화

▣ 『창의 DREAM 수업연구회』 활동을 시작하며

본 연구회는 교육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호기심으로 창의·인성교육 포럼에 참여한 이후 조직되었다. 1+1이 2가 아니라 서로의 시너지 효과로 5도 될 수 있다는 융합 수업에 매력을 느끼고 예술중심 타 교과 융합수업 지도안 개발 및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 최우수 창의·인성수업연구회로 선정되었고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창의 DREAM 수업연구회』 활동을 펼치며

2014년에는 배움 중심 공동체 연수를 통해 1학년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배움이 일어나는 교과융합형 창의·인성교육 수업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해보고 이를 통해 수업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 창의 인성교육 관련 연구 활동

창의·인성수업 연구회 워크숍에 참여한 뒤 교육은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 주고 예술적 감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을 방문하여 전국의 학교 및 동아리의 창의·인성교육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수업 관련 연수활동을 통하여 기본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 배움이 즐거운 1학년 융합형 창의·인성교육 수업 실천

- 배움이 즐거운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표현 재료 및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우리가 만드는 그림자 이야기’에서는 국어과의 ‘흥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 쓰기’와 통합교과의 ‘그림자놀이’를 융합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그것에 맞게 흥내 내는 말을 넣어 이야기를 꾸미도록 하였다. 교과서와 달리 빛을 이용한 그림자놀이를 안내함으로써 그림자에 대한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모둠별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상상력·표현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 정기협의회(매월 2주 목요일)와 새미학급을 활용한 협력연구 결과를 정선하여 연8회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자료를 소개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2014. 우수수업동영상 자료를 제작·탑재하여 전국의 선생님들과 자료를 공유하였다.

▣ 『창의 DREAM 수업연구회』 활동을 정리하며

본 연구회는 오래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나름의 실적을 내었다고 자부한다. 국어, 수학 교과 융합형 창의·인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로 창의·인성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교육 정보의 교환 및 협동하는 수업 연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좋은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도 즐겁게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작지만 아이들의 행동과 말 속에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채찍질 해야겠다고 느낀다.





낙서하모니 교육활동으로 크게 자라는 낙서어린이

의령 낙서초등학교 **전효식** 선생님을 만나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의령군에서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낙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효식입니다. 올해로 교직 경력은 22년이 되었습니다. 초등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Q. 선생님은 낙서하모니 교육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낙서하모니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본교 특색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바른 인성 함양, 창의성 신장 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교생이 15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학교에서는 일상적인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모둠활동이나 단체 게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 학생들과 달리 양질의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체험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낙서하모니 교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낙서하모니는 어떤 활동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낙서하모니(HARMONY) 교육은 건강 체력(Health Body), 창의미술(Art Work), 생각독서(Read

Books), 활동음악(Music Performance), 야외활동(Outdoor Activity), 바른 인성(Nice Personality), 자유토론(Yabber on subject)의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월 2회씩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력 활동에서는 긴 줄넘기, 림보, 원반던지기 등 모듬별 순환 체육을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창의미술 활동에서는 골마루 벽에 벽화를 직접 그리거나 자신의 얼굴 특징을 살려 캔버스에 그리는 예술 활동을 체험합니다. 생각독서 활동에서는 동화구연을 연습하여 녹음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다문화 신문 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사고력을 신장합니다. 활동음악에서는 동요를 파트별로 연습하여 합창하고 1인 1악기를 익혀 전교생이 리듬합주를 함으로써 고운 심성을 기릅니다. 야외활동에서는 모듬별로 텐트를 설치하고 간이 풀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 바비큐파티를 즐기며, 바른 인성 활동에서는 영미 문화 배우기, 컵케익 만들기, 친구와 내 고장 둘레길 탐방하기로 친구 사랑을 실천하는 등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합니다. 자유토론에서는 학생들과 관련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나라면'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와 생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Q. 해당 활동 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이번 7월 하모니 교육에서는 「'야, 여름이다!' 캠핑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안전 수칙을 지도한 후 학생들과 함께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의 상징인 수양버드나무 아래에서 바비큐파티 준비하였습니다. 마치 가족이 캠핑 온 것처럼 학생들과 전교직원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구워먹는 삼겹살 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Q.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A. 항상 2~3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다가 15명이 함께 하는 수업을 함으로써 소인수 학급에서 결핍되기 쉬운 공동체의식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경험하기 힘든 캠핑,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은 월 1회 실시하는 하모니 교육활동을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역시 호의적인 눈으로 교육활동을 바라보고 계시고, 농촌에서 소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보완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우리 학교에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본교 교사들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교사 옥복녀의 서재는 삶의 당근과 채찍이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책을 만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호되게 꾸짖는 책도 만납니다.

책은 당근이고 채찍이며 저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을 읽습니다.



1. 선생님의 어린 시절 및 독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엔 노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죽 잘 놀았으면 별명이 ‘까불이’였을까요! 실컷 놀았습니다. 그때는 놀이가 공부였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말하더군요. ‘어릴 때는 놀아야 할 때입니다. 놀면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책을 읽어야 할 사람은 어른입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른입니다.’ 늦게 시작한 독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책을 좋아한지는 길어도 7년 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상훈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을 맛보고 부터는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독서토론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책을 읽고 그것을 나누는 활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 선생님의 서재를 소개해 주세요.

방 하나가 서가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구요. 처음엔 책을 모으는 재미에 신났습니다. 책 읽은 경력이 짧은 만큼 처음엔 자기계발 위주의 책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서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 심리학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부모교육 서적, 아이들의 심리, 뇌와 관련한 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신간이 나오는 대로 읽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양서, 혹은 좋은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책은 소통입니다. 작가와 내가 비밀스럽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하고 ‘나도 한 번 해볼까?’ 싶어집니다. 설득하는 방법이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오한 것을 쉽고 명쾌하게 말하는 책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깨달음과 통찰이 있어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의 에너지가 전해지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심장이 뛰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책이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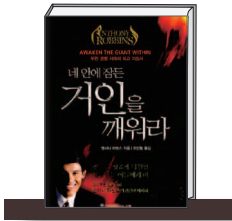
4. 학생들 혹은 동료 교사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 취향에 맞게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심리학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좀 더 깊게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을 읽으면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위인전, 전기문도 좋겠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책, 고르는 과정부터 스토리가 있으면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5. 선생님이 읽으신 책과 관련해서 혹시 교과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요?

저는 1학년 담임하는 5년 동안 매일 아침독서 시간에 한 권씩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책 읽어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하브루타 독서법을 활용합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어주고 하브루타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차곡차곡 아이들의 지식창고에 저장되어서 어느 순간 새로운 지식으로 변용되어 창의성이 발휘될 날이 있겠지요.

책 읽는 교사의 서재 BOOK in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 (지은이), 조진형 (옮긴이) | 씨앗을 뿌리는 사람 | 2008-03-25

처음 자기개발서를 읽게 되면서 접했던 책이다. 사람들은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한다. 그 가능성을 거인이라고 말하는데, 각자 자기 안의 거인을 깨우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거인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 단계적인 훈련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지은이), 이시형(옮긴이) | 청아출판사 | 2005-08-10

정신이 번쩍 드는 책이다. '나는 과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있게 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읽은 책이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

디팩 초프라(지은이), 김병채(옮긴이) | 슈리 크리슈나 다스 아쉬람 | 2010-10-20

자기개발서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다. 책 두께도 아주 얇다. 금방 읽는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심오한 책이라는 생각을 했다. 삶의 비밀을 손에 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주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창조될 수 있다고 한다. 부와 성공은 이런 법칙들을 잘 적용하며 사는 것, 봉사한 댓가로 주어지는 산물임을 말한다.

그림 재능 기부, 나누어서 더욱 행복해요

글 양산 물금고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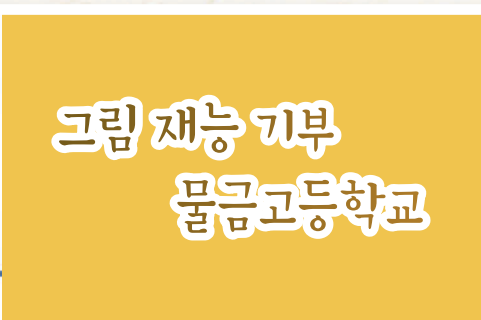
평소 화장실과 폐휴지 처리장을 지나 갈 때마다 낡은 벽을 보며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생각했었다. 칙칙하기도 하고 위생상 좋지 않은 부분을 바꾸는 것에 교직원과 학생은 모두 한마음 이었다. 어쩌면 어렵지 않게 덜컥 시작한 일이었지만 교육재정이 빠듯한 마당에 만만치 않게 들어갈 예산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열정적인 학생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조로 이번 여름에 벽화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더럽고 낡은 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때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미국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키스해링의 회화형식을 빌려 화기에애하고 생동감 있는 벽화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 비전도 빠질 수 없기에 벽화에 온전히 담기로 했다. “미래 행복 역량을 키우는 PASSION 물금인 육성”을 나타내는 물금인의 의지가 반영된 벽화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림 재능 나눔으로 학교 벽화 그리기』는 재학생인 학생들의 재능기부와 학부모회 및 지역민의 협조로 제작하였다. 전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인 [CHANGE] 팀원들이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틈틈이 벽면을 채워 나갔다. 재료는 학부모와 지역민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 학생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은 학생과 교직원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멋진 작품을 탄생시킨 학생들의 노력과 무엇보다 벽화를 함께 완성해 내었다는 공동체의 경험이 값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었다. 또한 벽화가 탄생해서 얻은 심미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동아리 학생들은 분명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었으리라고 믿는다.

그림 재능 나눔으로 무채색이었던 학교가 활짝 핀 꽃처럼 활기를 찾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전 교직원, 학생들이 느끼는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키스해링의 색채감이 학생들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탄생한 벽화는 학교에 새로운 빛깔과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른 소소한 일을 따져보자면 이번 그림 재능 나눔으로 학교는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의 예산 7백여 만원을 절감하여 어려운 교육재정에 기여를 하게 되었고, 작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남기게 되는 기회가 되어 더욱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공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작품사이즈 100호(재료 : 한지에 수묵담채)

제목 >> 숲

마음의 묵은 티를 씻어 내듯 맑은 대나무의 이미지를 담고, 겨울에도 변함없이 곧고 푸른 균자의 절개를 품은 대나무를 소재로 대숲의 가을 풍경을 표현함.

박 영 애 / 현) 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
- 개인전 6회(서울, 안산, 부산, 창원, 김해, 진주)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 경상남도미술대전 특선 및 각 공모전 수상 20여회 등
 -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심사 다수 • 김해한국화가회, 김해선면작가협회 회장 역임
 - 경남선면예술가협회 회장 • 경남한국화가회, 경남여성작가회, 김해미술협회 등 회원 • 경남미술대전 초대작가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2. 선행교육 근절
 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떻게?

아이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3차 전수조사(2015년 상반기)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여부,
차량보험 가입여부,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요.

어떻게?

02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schoolbus.ssif.or.kr) 제공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통학차량 알리미' 검색

- 통학차량과 관련해
- 운전자 및 운전자 교육수료 여부
 - 법적 안전장치 구비여부
 - 보험가입여부
 -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시켜,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